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고 민 정

2013년 8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지도교수 엄 미 경

고 민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고민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초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고 민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염 미 경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인 백록초등학교(2~6학년)와 수원초등학교(4~5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과 심층인터뷰방법이다. 질문지법의 경우 총 1,143명 대상으로 하였고, 질문지법에 의해 수집한 자료를 주요 분석대상 자료를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학생과 교사와의 심층인터뷰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학교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에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 학교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과 어울리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학교 분위기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년이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학년이 3, 4, 5, 6학년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를 제외하고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2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외모, 피부색, 언어의 차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같은 반 여부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관심도와 친밀도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같은 반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적응도와 호감도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응도와 호감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같은 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 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호감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주된 활동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서로 어울리면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호감을 갖고 친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 일반 학생의 경우 알고 있지 않은 일반 학생보다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할수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친밀도를 제외하고,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에서는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1회, 2회, 3회 이상의 경우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같은 반을 한 적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는 높아지지만 친밀도는 같은 반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아진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보다 친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 지역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때 양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였고, 질적 분석 결과는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질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축적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초등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비교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	4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7
III. 연구 설계	10
1. 연구대상과 방법	10
2. 연구과정과 자료처리	13
IV. 연구결과 및 해석	1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5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인식	16
3. 성별, 학년, 같은 반 여부에 따른 인식	18
V. 결론 및 제언	33
참고문헌	36
부 록	39

표 목차

<표 II-1>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4
<표 III-1> 초등학생 인식 질문지의 문항 구성	12
<표 III-2> 본 연구의 분석 내용과 자료 분석 방법	14
<표 IV-1>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16
<표 IV-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조사대상 학생의 인식	17
<표 IV-3> 성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1)	18
<표 IV-4> 성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2)	19
<표 IV-5> 학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1)	21
<표 IV-6> 학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2)	21
<표 IV-7> 같은 반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1)	24
<표 IV-8> 같은 반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2)	25
<표 IV-9>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1)	27
<표 IV-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2)	28
<표 IV-11> 같은 반을 한 횟수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1)	29
<표 IV-12> 같은 반을 한 횟수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2)	30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주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문화권 간 접촉이 활발하면서 국내체류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제로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체류외국인 수가 2013년 현재 150만 1,761명을 기록, 150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 2003년 국내체류외국인이 67만 8,687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국내체류외국인 수가 2배 넘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외국인인 38만여 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체류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의 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 출신이 49.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이어서 미국 9.3%, 베트남 8.1%, 일본·필리핀·타이 각각 약 3%, 우즈베키스탄 2.5%, 인도네시아 2.3%, 몽골 1.8%순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3).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곧 다문화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들의 유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염미경, 2011).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과 갈등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역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정부와 학계는 다양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대표적인 정부의 대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법무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 북>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학계 역시 학문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다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실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과 타문화와 자문화의 소통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강진구, 2008: 54-55).

국제결혼과 외국인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2)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2009년 2만 6,015명, 2010년 3만 1,788명, 2011년 3만 8,678명, 2012년 4만 6,954명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84.2%, 중학교 11.7%, 고등학교 4% 순으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에서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은 앞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

이처럼 취학 연령대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문제는 다문화를 둘러싼 핵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겨를 없이 학교현장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²⁾가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문제로는 한국어가 미숙한 부모와 생활하는데서 오는 언어발달의 지체로 인한 학업에서의 어려움(한경진, 2011), 자유롭지 못한 의사소통과 피부색, 외모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겪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금명자 외, 2006; 안경승, 2011; 오성배, 2006),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학생이 소수인 다문화가정 학생을 불쌍하다고 보거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자아상실감 문제 등이 있다³⁾(안경승, 2011).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 중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 연구, 40(3), 1-28.
2)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직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 등을 말한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경진(2011), 금명자 외(2006), 안경승(2011), 오성배(2006) 등의 연구들을 참조바람.

학생들은 친구관계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또래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각기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친구관계는 상호의존과 자발적이라는 새로운 대인 관계의 시초가 된다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한경진, 2011).

특히, 초등학생은 자기중심성이나 성인의존성에서 벗어나 친구와의 관계에 몰입하게 된다. 초등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친밀도가 생긴다. 그러나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위축되며 자신감이 결여된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이 지속될 경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안경승, 2011).

따라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문화가정 학생과 생활하는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우리
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한다.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구분		내용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 이민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
	중도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태어난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 대부분이 중국인·조선족(약 90%이상) ·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중·고등학생)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짐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언어 환경, 학교 부적응 문제, 그리고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 환경적 특성에 대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는 언어 습득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은주(2008)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취학 전에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같은 또래의 학생에 비해 언어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학습 결손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이은주, 2008).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은 물론 정서발달의 장애를 가져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들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배(2005)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인성, 사회성,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위축, 불안, 분노, 공격성 등이 가정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은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일반 학생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단절시킬 수 있다. 조영달(2006)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가 ‘잘난 척해서’(29.4%)인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달, 2006).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단 따돌림 경험은 이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이어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문화적응을 어렵게 한다.⁴⁾

4)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교에서의 학습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로 인해 학업결손 및 무기력, 주의력 결핍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집단 따돌림과 놀림을 경험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피부색, 외모, 다른 국적의 부모 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그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대부분이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들의 정체성 혼란 경험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나타나는데, 일반 학생에 비해 언어, 문화, 가치관, 외모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놀림, 차별,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은 더욱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정하성 외, 2007).⁵⁾

하면서 정서적 충격이나 어려움을 겪는다(설동훈 외, 2005; 전경숙, 2010).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하여금 불안, 위축, 소극적 행동을 하게하고 공격성, 폭력,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서적 장애를 겪게 할 수 있다.

- 5) 다문화가정 학생은 가정 내에서도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일찍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개인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다문화가정 학생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최근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 학생과 외국인노동자가정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 문제, 북한이탈가정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⁶⁾ 따라서 이들이 학교생활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과 잘 어울리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조영달 외(2007), 고아라(2005), 노경란, 방희정(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조영달 외(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서 일반 학생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아라(2005)의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이 동북아인보다 백인에 대해 더 친숙하게 여기고 있고, 동남아인과 흑인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흑인을 가장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백인과 동북아인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나쁜 인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란, 방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았는데, 성별에 따른 호감도는 차이가 없는 반면, 학년에 따라서는 호감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의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이 의식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연구학교나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6) 특히 북한이탈가정 학생의 대부분은 본 학년보다 낮은 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차별적 시선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2005),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등의 자료를 참조바람.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인종주의적 편견이나 배제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따라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문화 수용에 대한 교육적 노력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일반 학생의 태도, 행동, 그리고 다문화 인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이 이륜(2010)의 연구이다. 이륜(2010)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관심, 적응, 호감, 친밀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이륜(2010)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 분석 틀을 수용해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심, 적응, 호감, 친밀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사용하고자 한다.

관심은 주의력이나 흥미가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 생기는 심적 태도나 재미, 또는 어떤 대상에 마음이 끌리는 감정을 말한다(이륜, 2010; 천수임, 2010). 본 연구에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갖는 관심 정도를 살펴보려는 것은 친구 관계 형성 이전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끌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적응은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 조화로운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여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박계란, 2010; 이륜, 2010). 즉, 적응은 학생이 학교 질서를 지키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갖는 적응 정도를 살펴보려는 것은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얼마나 조화로운 관계를 유

지하고자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호감은 친구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인 감정을 말한다(이륜, 2010; 천수임, 2010). 학생이 친구 관계를 맺기 전에 다른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보다 자연스럽게 상대방 친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학생은 자신과 의견이 맞는 친구를 선호하며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김희진, 김민희, 박선미, 2007). 본 연구에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갖는 호감 정도를 살펴보려는 것은 친구 관계를 맺기 전에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호감을 갖게 되면 서로 잘 이해해주고 다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호감은 일반 학생이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친밀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서 심리적·정서적인 가까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박의순, 1990; 이륜, 2010), 가까움, 따뜻함, 신뢰, 관심, 이해, 존경, 도움, 대화 등 주관적인 유대관계를 말한다. 친밀에는 다른 친구들과 친밀하며, 신뢰하고 신뢰를 받고, 존경하며 존경받는다는 지각을 포함하며, 상호 간에 공평함과 이해의 감정적인 측면도 포함된다(임미영, 2002). 따라서 친밀은 친구 간에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친구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친밀은 타인의 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상호 간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일단 친밀감이 생기면 서로의 생활 속에서 상호조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상호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호 간의 차이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친밀 정도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이다. 백록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였고, 수원초등학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였다. 이들 두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황을 보면, 백록초등학교의 경우는 7명(2, 3, 4학년 각각 1명, 5학년 3명, 6학년 1명)이며, 수원초등학교의 경우는 2명(4, 5학년은 각각 1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같은 반 또는 같은 학년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백록초등학교에는 2~6학년에 있으며, 수원초등학교에서는 4~5학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학년인 또래집단 학생들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백록초등학교 2~6학년 일반 학생(1,207명)과 수원초등학교 4~5학년 일반 학생(47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는 2012년 3~4월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인터뷰조사도 병행했는데, 이는 2013년 4월에 이루어졌다. 주요 대상은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 학생들과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들이다.

2) 연구방법과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법과 심층면접법을 병행해 사용하였다.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각각 1,207명, 47명이다. 이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백록초등학교 1,098부, 수원초등학교 45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질문 문항은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문항(성별, 학년, 같은 반 여부, 다문화가정 학생 인식 여부,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 횟수)을 제외하고 총 21문항이다. 조사 도구의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질문의 내용은 선행연구(이륜, 2010)를 토대로 관심도 영역(1~3번), 적응도 영역(4~10번), 호감도 영역(11~15번), 친밀도 영역(16~21번)으로 나누어서 구조화하였다(<표 III-1> 참조). 문항별 응답은 ‘예’, ‘잘 모르겠다’, ‘아니오’이며, 긍정적인 대답인 ‘예’에는 3점, ‘잘 모르겠다’에는 2점, 그리고 ‘아니오’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역질문 문항(1, 3, 4, 5, 6, 7, 10, 11, 12, 13, 20번)일 때는 ‘예’ 1점, ‘잘 모르겠다’ 2점, 그리고 ‘아니오’ 3점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점수 부여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 학생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3점에 가깝고, 부정적일수록 1점에 가깝도록 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일반 학생의 응답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유의수준(P 값)을 사회 과학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05로 설정하였다.⁷⁾ 이에 따라 P 값이 $P < 0.05$ 이면 *, $P < 0.01$ 이면 **, $P < 0.001$ 이면 ***를 붙여서 나타냈다. 본 연구의 조사 분석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문항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7) P 값이 0.05라는 것은 표본통계치의 신뢰도가 95%라는 것을 의미한다(통계분석방법, 2011).

<표Ⅲ-1> 초등학생 인식 질문지의 문항 구성

영역	번호	조사 문항
관심도 영역	1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나와 짝이 된다면 기분이 안 좋다.
	2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돕는다.
	3	다문화가정의 학생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
적응도 영역	4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우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5	만약 내가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라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없다.
	6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
	7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만들거나 게임을 못한다.
	8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우리들보다 잘 하는 것이 있다.
	9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사귀다.
	10	(우리 반에)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나와 내 친구들에게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
호감도 영역	11	다문화가정의 학생과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12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우리 반이 되면 싫다.
	13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게임을 할 때 나와 같은 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4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같이 가자고 하면 함께 간다.
	15	만약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친구를 도와준다.
친밀도 영역	16	만약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준비물을 빌려준다.
	17	내가 아끼는 물건을 나와 친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 선물을 한다.
	18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 위로해 준다.
	19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실수를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20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놀려도 된다.
	21	다문화가정 학생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질문지 분석 결과와 관련해, 정형화된 범위에서의 응답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본 연구의 조사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심층인터뷰방법을 병행해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학생과 교사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심층면접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2. 연구과정과 자료처리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분석 자료이다. 조사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감과 다문화교육 관련 행정담당 교사를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의 다문화교육 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수거는 백록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3월 초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2주 후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수거하였으며, 수거하지 못한 질문지는 1주 후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그리고 수원초등학교는 3월 말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1주 후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17.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대상 학생의 특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기술통계와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변량분석(t-검정과 ANOVA)⁸⁾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때 본 연구의 분석에서 성별, 학년, 같은 반 여부,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 다문화가정 학

8) t-검정은 두 집단 이하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며, ANOVA는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통계분석방법, 2011).

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를 주요변인이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본 연구의 분석 내용과 자료 분석 방법

분석 내용		주요 변인	자료 분석 방법
초 등 학 생 인 식	관심도	성별	기술통계, ANOVA
	적응도	학년	기술통계, ANOVA
	호감도	같은 반 여부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	기술통계, ANOVA
	친밀도	같은 반 여부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	기술통계, ANOVA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응답 비율의 차이로 인해 백록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47.4%, 여학생이 52.6%이다. 학년은 2학년 18.8%, 3학년 21.7%, 4학년 20.4%, 5학년 23.1%, 6학년 16.0%이다. 같은 반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19.5%,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은 80.5%이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55.3%,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은 44.7%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대해 ‘한번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3%, ‘1회’ 27.5%, ‘2회’ 8.5%, ‘3회 이상’ 4.7%로 나타났다(<표 IV-1>을 참조).

<표 IV-1>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42	47.4
	여	601	52.6
학년	2학년	215	18.8
	3학년	248	21.7
	4학년	233	20.4
	5학년	264	23.1
	6학년	183	16.0
같은 반 여부	예	223	19.5
	아니오	920	80.5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	예	632	55.3
	아니오	511	44.7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	없음	678	59.3
	1회	314	27.5
	2회	97	8.5
	3회 이상	54	4.7
계		1,143	100.0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인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 1,143명의 인식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이 전체 최소값 1.48, 최대값 3.00, 평균 2.62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아니오’(1점)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예’(3점)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학생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학생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를 보면, 관심도는 최소값 1.00, 최대값 3.00, 평균 2.62이고, 적응도는 최소값 1.14,

최대값 3.00, 평균 2.52이며, 호감도는 최소값 1.20, 최대값 3.00, 평균 2.72이다. 그리고, 친밀도는 최소값 1.17, 최대값 3.00, 평균 2.67로 나타났다.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값을 볼 때 ‘아니오’(1점)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예’(3점)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조사대상 학생의 인식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 체	1.48	3.00	2.62
관심도	1.00	3.00	2.62
적응도	1.14	3.00	2.52
호감도	1.20	3.00	2.72
친밀도	1.17	3.00	2.67

<표 IV-2>를 보면,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평균값이 3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감도 값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향후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3. 성별, 학년, 같은 반 여부에 따른 인식

1) 성별에 따른 인식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P값)를 정리하면, <표 IV-3>와 같다.

<표 IV-3> 성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1)

	P
전 체	0.000***
관심도	0.000***
적응도	0.000***
호감도	0.000***
친밀도	0.000***

*** $P < 0.001$

<표 IV-3>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간 전체 평균 차이에 대한 P값은 0.000($P < 0.001$)으로 나타나,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값이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성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2)

		남	여
전 체	평균	2.72	2.54
관심도	평균	2.72	2.52
적응도	평균	2.61	2.45
호감도	평균	2.81	2.63
친밀도	평균	2.76	2.58

<표 IV-4>를 보면, 성별의 평균값은 남학생이 2.72, 여학생이 2.54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심도는 남학생이 2.72, 여학생이 2.52로 나타났다. 적응도는 남학생이 2.61, 여학생이 2.45인 것으로 나타났고, 호감도는 남학생이 2.81, 여학생이 2.63이며, 친밀도는 남학생이 2.76, 여학생이 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이러한 측면은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학생은 서로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지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과 어울려 지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약간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여학생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백록초등학교 A 남학생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9일)

9) 교사에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여학생의 경우 타 집단 혹은 타인에 대한 배타심이 다소 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러한 결과에 따른 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볼 때 수원초등학교는 체류외국인 강사를 섭외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수업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다문화인권교육에 관해 1년에 17시간 교육을 하고 행사, 다문화 관련된 독서, 동영상 등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원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일주일에 한 번은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수원초등학교 B 교사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5일)

“남학생은 예를 들어 축구, 농구 같은 활동적인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다문화가정 학생을 소외시키지 않고,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학생은 모여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이야기가 잘 안되면 아무래도 어울려서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수원초등학교 B 여학생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5일)

이상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여학생은 친한 친구 중심으로 서로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눔으로써, 남학생은 구기 종목 활동을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¹⁰⁾

2) 학년에 따른 인식

학년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P값)를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10) 후속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향이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IV-5> 학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1)

	P
전 체	0.001**
관심도	0.055
적응도	0.000***
호감도	0.336
친밀도	0.001**

** $P < 0.01$, *** $P < 0.001$

<표 IV-5>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다섯 집단(2, 3, 4, 5, 6학년) 간 전체 평균 차이의 P값은 0.001($P < 0.01$)로 다섯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응도($P < 0.001$)와 친밀도($P < 0.01$)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심도($P > 0.05$)와 호감도($P > 0.05$)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년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2)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 체	평균	2.68	2.57	2.62	2.63	2.63
관심도	평균	2.62	2.55	2.66	2.62	2.63
적응도	평균	2.60	2.43	2.47	2.58	2.55
호감도	평균	2.75	2.69	2.72	2.71	2.72
친밀도	평균	2.75	2.66	2.68	2.61	2.66

<표 IV-6>을 보면, 학년 간 평균값은 2학년 2.68, 3학년 2.57, 4학년 2.62, 5학년 2.63, 6학년 2.63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학년의 평균값이 3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학년 학생이 2.68로 다른 학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표 IV-5>에서 전체 학년 간 평균 차이의 P값이 0.001($P < 0.01$)로 학년 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학년 학생의 평균값이 다른 학년보다 높은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면, 관심도는 2학년 2.62, 3학년 2.55, 4학년 2.66, 5학년 2.62, 6학년 2.63으로 나타났다. 적응도는 2학년 2.60, 3학년 2.43, 4학년 2.47, 5학년 2.58, 6학년 2.55로 나타났고, 호감도는 2학년 2.75, 3학년 2.69, 4학년 2.72, 5학년 2.71, 6학년 2.72로 나타났으며, 친밀도는 2학년 2.75, 3학년 2.66, 4학년 2.68, 5학년 2.61, 6학년 2.6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관심도를 제외하고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서 2학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표 IV-5>와 같이 살펴보면, 적응도($P < 0.001$)와 친밀도($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적응도와 친밀도에서 높은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교사와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통해 알아본 결과, 또래집단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록초등학교 교사와의 심층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저학년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순수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학년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또래 집단 형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여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지냅니다. 하지만 고학년일수록 또래 집단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활발하지 못해 고학년과 그룹형성이 잘 되지 않아 주변만 형성되어 다 같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친구와 집단 놀이 활동을 통해서 수업과 현장학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서로 친해지는 활동이 필요하지만,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성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백록초등학교 A교사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9일)

2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 학생과의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고학년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학년은 그 당시에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부분이 좀 예민해요. 2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더 많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봐요.”(백록초등학교 A 남학생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9일)

“2학년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바라보고 우리와 똑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학년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아요.”(백록초등학교 B 남학생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9일)

이상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보면, 2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저학년 시기에 가졌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3) 같은 반 여부에 따른 인식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P값)를 정리하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같은 반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1)

	P
전 체	0.664
관심도	0.944
적응도	0.001**
호감도	0.048*
친밀도	0.335

* $P < 0.05$, ** $P < 0.01$

<표 IV-7>에 의하면,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지에 따른 전체 평균 차이의 P값은 0.664($P > 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응도($P < 0.01$)와 호감도($P <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관심도($P > 0.05$)와 친밀도($P >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지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

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같은 반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2)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 경우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없는 경우
전 체	평균	2.63	2.62
관심도	평균	2.62	2.62
적응도	평균	2.59	2.51
호감도	평균	2.68	2.75
친밀도	평균	2.65	2.67

<표 IV-8>를 보면, 같은 반 여부에 따른 전체 평균은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2.63,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2.62 나타나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관심도 2.62, 적응도 2.59, 호감도 2.68, 친밀도 2.65로 나타났고,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관심도 2.62, 적응도 2.51, 호감도 2.75, 친밀도 2.67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적응도를 제외하고 호감도와 친밀도에서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없는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표 IV-7>과 같이 살펴보면, 적응도($P < 0.01$)와 호감도($P <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같은 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 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심도($P > 0.05$)와 친밀도($P > 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도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 일 때 처음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또는 친구들이랑 놀 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반 할 때는 호감이 점차 줄어들게 되요.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른 반 일 때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보다는 좋은 인상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수원초등학교 A 남학생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5일)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일반 학생은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보다 호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에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호감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교현장, 특히 학급에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의 주된 활동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 안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어울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인식

같은 반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P값)를 정리하면, <표 IV-9>와 같다.

<표 IV-9>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1)

	P
전 체	0.000***
관심도	0.000***
적응도	0.000***
호감도	0.000***
친밀도	0.000***

*** $P < 0.001$

<표 IV-9>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P값이 0.000($P < 0.001$)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와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반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2)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지 않다.
전 체	평균	2.67	2.57
관심도	평균	2.67	2.55
적응도	평균	2.58	2.46
호감도	평균	2.75	2.67
친밀도	평균	2.70	2.62

<표 IV-10>을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 간 평균값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 일반 학생의 경우 2.67,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지 않는’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2.57로 나타나 일반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 일반 학생의 경우 관심도 2.67, 적응도 2.58, 호감도 2.75, 친밀도 2.70으로 나타났고, ‘같은 반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지 않은’ 일반 학생의 경우는 관심도 2.55, 적응도 2.46, 호감도 2.67, 친밀도 2.62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IV-9>를 보면,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서는 P값이 0.000($P < 0.001$)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 일반 학생의 경우 알고 있지 않은 일반 학생의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와의 거리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수원초등학교 학생과의 심층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은 아니지만 그냥 알고 지낼 때는 깊이 알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 친구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인사하고 어울려 서로 교류하고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수원초등학교 B 여학생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5일)

이상의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같은 반은 아니지만 서로 알고 지낼 때는 서로 인사하는 정도만의 인간관계를 갖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서로 함께 하면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른 인식 차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도(P값)를 정리하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같은 반을 한 횟수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1)

	P
전 체	0.002**
관심도	0.007**
적응도	0.000***
호감도	0.135
친밀도	0.037*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IV-11>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한번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P값은 0.002($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P < 0.01$), 적응도($P < 0.001$), 친밀도($P <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감도($P >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표 IV-12>와 같다.

<표 IV-12> 같은 반을 한 횟수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2)

			같은 반을 한 적 없음	같은 반을 한 횟수 1회	같은 반을 한 횟수 2회	같은 반을 한 횟수 3회 이상
전 체	평균		2.60	2.67	2.67	2.62
관심도	평균		2.58	2.67	2.67	2.67
적응도	평균		2.48	2.58	2.64	2.57
호감도	평균		2.70	2.75	2.72	2.72
친밀도	평균		2.67	2.70	2.65	2.56

<표 IV-12>를 보면,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른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전체 평균값은 ‘같은 반을 한 적 없음’ 2.60, ‘1회’ 2.67, ‘2회’ 2.67, ‘3회 이상’ 2.62로 나타나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라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 전체의 평균값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V-11> 참조). 그러나 같은 반을 한 횟수 간 평균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12>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심도는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음’ 2.58, ‘1회’ 2.67, ‘2회’ 2.67, ‘3회 이상’ 2.67이고, 적응도는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음’ 2.48, ‘1회’ 2.58, ‘2회’ 2.64, ‘3회 이상’ 2.57이며, 호감도는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음’ 2.70, ‘1회’ 2.75, ‘2회’ 2.72, ‘3회 이상’ 2.72이다. 또한 친밀도는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음’ 2.67, ‘1회’ 2.70, ‘2회’ 2.65, ‘3회 이상’ 2.5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1회’, ‘2회’, ‘3회 이상’인 경우보다 친밀도를 제외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가 낮다. 그리고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호감도를 제외하고 관심도, 적응도, 친밀도에서는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 참조). 따라서 같은 반을 한 적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는 높아지지만 친밀도는 같은 반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처음 같은 반을 했을 때는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그 친구를 대했어요. 저희랑 문화차이도 나고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나라에 대해 궁금하여 알고 싶어서 더 친밀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반 횟수가 늘어나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선입견은 없지만 그 친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잘 지내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를 못해 더 친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백록초등학교 A 남학생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9일)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같은 반을 한 횟수가 많

을수록 거리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 학교에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처음 같은 반을 했을 때는 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해 보고 싶다는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지만 같은 반을 한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특별함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같은 반 했을 때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친숙하게 느껴요. 이에 대한 선생님 지도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처음 봤을 때는 관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 처음에는 관심과 특별함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우리와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차별함 없이 우리와 같은 친구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백록초등학교 A교사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9일)

“같은 반을 처음 했을 때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지만 같은 반 횟수가 생기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없어지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친밀한 부분이 떨어지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업시간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소집단활동 기회를 높여 협력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 같아요.”(수원초등학교 B교사의 심층인터뷰 결과, 2013년 4월 5일)

이상의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한 횟수가 많다고 반드시 다문화가정 학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인 백록초등학교(2~6학년)와 수원초등학교(4~5학년)에 재학 중인 총 1,143명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성별, 학년, 같은 반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기반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학교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에 일반 학생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 학교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박정원(2007), 오진숙(2009), 이륜(2010)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성별 특성이외에,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분위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과 어울리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 지역적인 특

성이나 학교 분위기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년이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학년이 3, 4, 5, 6학년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를 제외하고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저학년일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유난영(2009), 송영호(2009), 황지민(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2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외모, 피부색, 언어의 차이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같은 반 여부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관심도와 친밀도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같은 반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적응도와 호감도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응도와 호감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같은 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 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호감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주된 활동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서로 어울리면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호감을 갖고 친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

정 학생을 알고 있는 일반 학생의 경우 알고 있지 않은 일반 학생보다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할수록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같은 반을 한 횟수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친밀도를 제외하고,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에서는 같은 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1회, 2회, 3회 이상의 경우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같은 반을 한 적이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일반 학생의 관심도, 적응도, 호감도는 높아지지만 친밀도는 같은 반을 한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아진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보다 친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 지역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때 양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였고, 질적 분석 결과는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질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축적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초등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비교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진구(2008).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문화콘
텐츠연구, 4, 53-77.
- 고아라(2005). 수도권 초등학생의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
구.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희진, 김민희, 박선미(2007). 유아에 대한 교사의 호감정도에 따른 교사의 귀인, 교
사-유아 상호작용, 교사행동에 대한 유아지각. 한국교육학회, 45(1), 127-156.
-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노경란, 방희정(2009). 다문화 시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15(1), 46-79.
- 박계란(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
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
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
- 박정원(2007). 초등학생의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법무부(20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 정책방안.
-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2011).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 안경승(2011).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긍정적 인식확대를 위한 제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구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미경(2011). 학교 밖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방향 모색: 박물관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연구, 5, 65-88.
- 이륜(2010).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도 차이와 다문화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영(2002). 가족친밀감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진숙(2009).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난영(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1, 174-203.
- 전경숙(2010).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하성 외(2007).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양서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서울 : 교육인적자원.
- 조영달 외(2007).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
부.
- 천수임(2010). 초등학생의 조선족 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2). <http://www.kostat.go.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 한경진(2011).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민(2010).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T>

A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o, Min-ju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eum, Mi-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n some educational measures in order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adjust to school life by investigating a perception of norma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statistical analysis with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total 1,143 students from Baekrok elementary school(grades 2 to 6) and Suwon elementary school(grades 4 to 5) which are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schools in Jeju island. And in-depth interviews method with students and teachers based on research data by the questionnaires are also used.

A brief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studying normal students' degree of interest,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ll four elements show high rate. However, it is considered to have this result as the schools participated are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schools. As a perception of norma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school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y think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adjusting to their school lives, have good impression on them and feel

favorability. Thus,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being run mostly by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schools shall be expended to normal schools.

Secondly, as a result of looking at interest,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of norma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gender, male students showed higher rates than female students. This shows male students have more positive thought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an female students.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gender characteristics when design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in order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adjust to school life by getting along with normal students, and als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chool moods shall be considered as well.

Thirdly, as a result of looking at interest,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of norma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grade, grade 2 showed higher rates of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an grades 3, 4, 5 and 6. This shows grade 2 has positive thought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mparing to other grades. Thus, reconsideration of desirable perception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shall be conducted not to have any prejudice and stereotype on differences of appearance, skin color and language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ge of the students shall be considered as well for the education.

Fourthly,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study, normal students being in the same class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oesn't mean that it effects on interest,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of norma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when looking at it specifically, while normal students being in the same class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oesn't effect on interest and familiarity of norma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ut on adjustment and favorability. A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justment and favorability, it is showing that normal students who have school life together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ame class think they adjust to the school life well; however, they have a lower favorability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us,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 program that helps

normal students and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et along with each other and form friendship in the school as this is their main activity place, and also enables them to have favorability to each other.

Fifthly, as a result of analyzing to see if normal students knowing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ffects on interest,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towards to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normal students who know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e higher interest,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than normal students who don't. This shows that spending more time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ill make them positive abou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us, there is a need to make a school environment that normal students and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an get along with each other during their school life.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o see if frequency of normal students being in the same class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ffects on interest, adjustment, favorability and familiarity towards to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cept for favorability, normal students who were never in the same class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e lower interest, adjustment and favorability comparing to normal students who were in the same class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ce, two times and more than 3 times. This shows that while interest, adjustment and favorability goes higher when normal students being in the same class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ore than once, favorability shows the opposite. Thus, there is a need for a program that enables normal students to spend time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uring their school life and feel closer to them.

The target of the study was only Jeju-si. To generalize the study result, there shall be a research with targe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schools throughout Jeju Island. Also, when measuring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 was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was only a complement. Thus, there should be more studies with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future research.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more deep and systemic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school and normal schools separately. This will be a challenge for the future study.

부 록

질 문 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이란 현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가정내에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본 질문지에 관한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고민정

※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2.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3. 같은 반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 같은 반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반을 몇 번 해 보셨나요?

- ① 한번도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난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대 답		
		예	잘모름	아니오
1	다문화가정 학생이 나와 짝이 된다면 기분이 안좋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돕는다			
3	다문화가정 학생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			
4	다문화가정 학생은 우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5	만약 내가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없다.			
6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			
7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만들거나 게임을 못한다			
8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우리들보다 잘 하는 것이 있다			
9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사귀다			
10	(우리반에)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더 신경쓰기 때문에 나와 내 친구들에게 쓰는 시간이 줄어든다			
11	다문화가정 학생과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12	다문화가정 학생이 우리 반이 되면 싫다			
13	다문화가정 학생이 게임을 할 때 나와 같은 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4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다문화가정 학생이 같이 가자고 하면 함께 간다			
15	만약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친구를 도와야 한다			
16	만약 다문화가정 학생이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준비물을 빌려 준다			
17	내가 아끼는 물건을 나와 친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선물 한다			
18	다문화가정 학생이 슬프거나 화가 났을 때 위로한다			
19	다문화가정 학생이 실수를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20	다문화가정 학생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놀려도 된다			
21	다문화가정 학생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